일본 헤이안시대에 나타난 복식현상

이자연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A Study of the Clothes Phenomenon of the Heian Period of Japan

Lee, Ja-Yeon

Fac.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clothes phenomenon of the ruling class women on the Heian period of Japan in the aspects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relig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Heian period of Japan may include a rare sense of internationalism, low sense of nationalism, and frequent cases of political intrigue. However, noble culture, centered on royal court, was flourished and it enabled to develop sophisticated and graceful culture. During the Nara period and the Heian period (from 8th to 12th century), there were enormous changes in the clothes, starting from the mid 10th century. The clothes of the ruling class in the Heian period underwent changes from the imitative clothes-imitating the clothes of the Tang age of China-to Japanesque clothes-adding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Japanese ruling class people. Particularly, the clothes of the ruling class women became massive, majestic, and decorative. The changed clothes had also features such as layered look, utilizing underwear as outer garments, using a wide variety of colors, and using hard and solid materials to make cloth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lothes of the ruling class people in the Heian period were affected by plural factors such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religion. The clothes were used by ruling class people as means of expressing their noble and sophisticated beauty, which led to produce humanistic beauty. The Heian period can be described as an era of the highest reach of humanity.

Key words: Heian period, ruling class, noble culture, imitative clothes, humanistic beauty

1. 서 언

일본에 있어 나라·헤이안시대의 약 500년간은 주변국의 정세와 함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 지배계층의 복식은 10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전보(이자연,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나라·헤이안시대 전기(이하 전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양식의 의복이 착용되었지만, 헤이안시대 중후기(이하 중후기)에는 점차 일본양식의 의복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헤이안시대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주목하여 지배계층의 복식이 10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중국풍에서 일본풍으로 변화하게 된 현상에 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와 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헤이안시대의 이해를 위

하여 당시의 국제정세와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관하여 알아보고, 당시 사회 내에서 나타난 지배계층 여자복식에 대한 복식현상을 살펴본 후 이러한 복식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당시의 여러 회화자료 및 유물자료 등을 참고로 연구한다. 본 연구에 언급된 지배계층이란 직급을 가진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본문의 외래어 표기에 있어, 명기된 일본어의 한글표기는 한글(한자)로 병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지명과 천황, 시대구분 등의 명칭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2. 헤이안시대의 시대적 배경

엔레키(延暦) 13년(794년) 수도를 헤이안쿄(平安京)로 옮겨 1192년 무사정권이 성립되기까지 약 400년간을 헤이안시대라고 하며, 수도 헤이안쿄는 메이지(明治)유신까지 천여 년간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된 곳이다. 초기 약 100년은 정치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당제를 모방한 시대로 9세기 전반에는 그 정점에 달하였으나, 9세기 말 후지와라씨(藤原氏) 일가가 정권을 장악하는 등 새로운 국내사정이 생기자, 각종 문물제도가 변화하

여 새로운 문화양식인 국풍문화가 성립하게 되었다(相川佳予子, 1984).

대외적으로는 당의 쇠퇴와 향로의 위험성,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894년 견당사를 폐지하였고, 10세기 초에는 발해와의 교섭도 중지하는 등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교섭은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천황의 외척세력인 후지와라씨가 10세기 후반부터 대립세력을 완전히 배제한 후 섭정과 관백이라는 직위를 통하여 정치를 독점하는 섭관정치를 상설화하였다. 후지와라씨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계속되면서 율령정치가 동요하고 관리의 규율도 혼란하여 후지와라씨의 국정장악은 공사가 혼동되는 풍조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장원이 형성되었으며, 장원의 발달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관의 부패를 양성하고 토지를 둘러싼 항쟁과 도적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각지에서 자위적인 무사단이 발단되었다. 민간에서는 전란이 계속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법 사상의 유행을 배경으로 정도종이 과급되었다(박동석 외, 2000). 문화적인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의존도가 쇠퇴하고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귀족문화가 변형하여 궁중을 중심으로 한 귀족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사가(嵯峨)천황과 세이와(清和)천황의 연호를 따서 코우닌(弘人), 조우간(貞觀) 문화라 하며, 미학적인 세련됨을 추구함으로써 미술과 문학이 더욱 새롭게 발전하여 일본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

3. 지배계층 여자복식에 나타난 복식현상과 요인분석

3.1. 복식현상

전기와 중후기에 나타난 복식현상의 요인 고찰을 위하여 당시의 복식양상에 관하여 파악하기로 한다. 우선 전기와 중후기의 지배계층 복식 중 복식현상이 현저히 나타나는 전기의 길상천녀상에 나타난 복식과 중후기의 물구장속을 중심으로 종류와 명칭, 용도, 형태, 구성, 소재, 착장법, 색상에 관하여 비교해 보

Fig. 1. 길상천녀상의 복식, 奈良朝服飾の研究(図録編), p.17.

Fig. 2. 물구장속, 日本女性服飾史, p.53.

기로 한다.

Fig. 1, Fig. 2, 길상천녀상은 나라시대 호우키(宝龜)2년에 약사사에서 행하여지던 의식의 주존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당나라 궁중의 사녀를 연상하게 하는 여인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서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된 그림으로 여겨지고 있으며(최순우 외, 1993), 나라시대 당시의 복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3.1.1. 구성복식의 종류, 명칭, 용도

전기의 길상천녀상의 복식에 있어 구성복식의 종류와 명칭을 보면 윤건, 배자, 대수의, 중단, 내의, 군, 습, 폐슬, 비대, 영건과 보계, 그리고 말과 석이 있으며, 중후기 물구장속의 구성복식으로는 당의와 표착, 규, 단, 상, 고, 비례와 군대, 보관, 말과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자연, 2008). 복식의 종류와 명칭 면에서 전기의 복식이 중후기의 복식에 비하여 윤건, 배자, 대수의, 중단, 군, 습, 폐슬, 영건, 말, 석과 같은 중국복식의 종류와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기와 중후기의 구성복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기에는 존재하였으나 중후기에는 없어진 복식으로는 윤건과 폐슬, 중단, 습이 있으며, 전기에는 없었으나, 중후기에 새로 생긴 복식으로는 표착과 규가 있고, 그 외의 것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명칭이 변화된 것이다. 즉, 중국의 양식을 모방한 전기의 복식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퇴화되고 대신 중후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복식양식이 등장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기와 중후기의 복식 중 용도는 같으나 명칭이 다른 것은 전기의 배자와 중후기의 당의, 전기의 대수의와 중후기의 표착, 전기의 내의와 중후기의 단, 전기의 군과 중후기의 상, 전기의 영건, 비대와 중후기의 비례, 군대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복식은 형태면, 구성적인 면, 소재, 착장법, 색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나타난다. 두 시대 모두 같은 명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관과 말, 석이 있다.

3.1.2. 구성복식의 형태, 구성, 소재, 착장법

전기와 중후기의 예복은 위의 종류, 명칭, 용도의 변화와 함께 형태와 구성, 소재, 착장법, 색상에 있어도 변화가 나타나는 데, 머리에 쓰는 보관과 말, 석을 제외한 인체의 체간부에 착장하는 복식을 중심으로 맨 위에서부터 착장하는 표의부터 살갓에 직접 닿는 속옷 순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전기의 배자와 중후기 당의의 경우, 형태적인 면에서 두 복식 모두 반수의 형태이며 겹옷으로 착장되는 표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전기 배자의 경우 깃은 교임으로 되어 있어 안에 입은 옷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있고 특히 얇은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복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인체선과 같은 자태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당의는 깃의 형식이 변령의 합임으로 되어 있으며 착장 시 안에

입은 옷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당의 소재로는 금(錦)이나 이배(二倍)직물, 부직물(浮織物), 능 등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귀갑문양, 능문(菱紋), 당초문, 소규문(小葵紋)을 넣어 중량감을 더해 줌으로서, 착장 시 형태가 고정되고 안정성이 갖추어져 실제 인체의 선보다 크게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착장법의 경우 두 복식 모두 맨 길옷으로 착장함으로써 표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의 대수의와 중후기 표착의 경우, 두 복식 모두 수령에 긴 소매로 되어 있어 형태와 구성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재 면에 있어 대수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견 소재로 되어 있어 인체에 밀착되는 경장숙(輕裝束)이나, 표착은 이배직물, 부직물을 겹감의 소재로 하고 안감은 능문이 새겨진 능(綾)으로 되어있어, 인체에 밀착한다기보다는 의복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강장숙(強裝束)이기 때문에 넓은 품과 소매의 선이 그대로 나타나 복식의 형태는 인체보다 큰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표착아래에는 표착과 같은 형태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착장방식으로 인하여 실루엣은 더욱 더 크게 표출되고 있다.

전기의 내의와 중후기 단의 경우, 내의는 수령에 소매통이 좁은 통수로 되어 있는 반면, 단은 표착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나 표착보다 치수가 크게 되어 있다. 단의 소매가 단위에 착용하는 규, 표착, 당의보다 크고 길게 되어있어 소매 자락은 길게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기의 군과 중후기 상의 경우를 보면, 전기의 군은 하의로 착용하는 스커트 형으로 군의 자락에는 주름이 잡혀 있는 습이 달려있다. 군의 길이는 허리에서 착용하여 발에 끌릴 정도이며, 옷감에는 세로로 서로 다른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중후기에 와서는 전기의 스커트 형과는 달리 군의 앞 부위를 분리하여 등 쪽의 허리부위로 돌려 길게 늘어뜨리는 장식적인 요소로 되면서 군이 상으로 변화되었다(高田倭男, 1977). 상이 형식화되어 장식적인 용도로 변화된 따라 소재에 있어서도 능에 삼중거문(三重襷紋) 또는 파문(波紋)을 넣은 것이 사용되었고, 《英花物語》에는 문양이외에 나선(螺鈿)으로도 장식을 한다(高田倭男, 1977)고 되어있어 상의 화려한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군 아래에 장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습과 군의 앞부분에 걸치도록 되어있는 폐슬도 자연히 퇴화되어 중후기의 장숙에서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뒷면의 길게 늘어뜨린 상의 형태로 인하여 착장 후의 전체적인 모습은 인체보다 상당히 크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Fig. 3). 그리고 군이 상으로 되어 허리 뒤의 장식적인 요소로 변화됨에 따라 군 아래에 입는 고는 표면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속옷이었던 고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자, 고는 우선 형태가 크고 길게 변화하였으며, 옷감에 있어서도 홍염을 한 평건이나 능을 사용함으로써(高田倭男, 1977) 형태 뿐 아니라 소재와 색상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전기의 영건과 중후기 비례의 경우, 어깨에서 팔까지 둘러 바닥까지 끌리게 하였고, 허리를 묶는 비대와 군대는 같

Fig. 3. 물구장숙의 뒷모습, 日本女性服飾史, p. 54.

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모양은 군대가 비대보다 길고 더 넓게 되어 있어 형태, 구성적인 면에서 더 크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복식의 색채

전기와 중후기의 복식변화에 있어 현저한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는 색채를 들 수 있는데, 중후기에는 240여종의 색채용어가 나타나고 있고 이 중 130여종이 복색으로 사용되어(伊原昭, 1977), 색의 종류만 하더라도 전기에 비하여 풍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색도 변화하여, 붉은 색의 경우, 전기에는 천염(茜染)을 한 진홍색의 붉은 색이 사용되었으나, 중후기에 와서는 홍화로 염색한 붉은 색을 선호하게 되는 등(高田倭男, 1977) 붉은 색 사용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중후기 물구장숙에 사용된 색채가 전기의 것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물구장숙 중 맨 아래에 입는 속옷인 단 위에 색을 달리한 수령형식의 규를 15령 또는 20령까지 겹쳐 착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깃 부위 소매, 앞여밈, 자락 부위에는 안에 겹쳐 입는 각기 다른 색의 복식이 외부에 나타나도록 착용함으로써 다양한 색을 연출하게 되어(伊原昭, 1977) 습색목(襲色目, 카사네이로메)이라는 새로운 복식미를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Fig. 4).

이와같이, 헤이안시대 중후기 지배계층의 여자복식은 전기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서 의복의 양적 면에서 증가하였고, 겹쳐 입는 의복의 매수로 인하여 장식성이 승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의복의 기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복식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착용매수의 가감으로 기후에 순응하는 복장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양적인 질량감과 겹쳐 입는 착장방식, 소재와 문양, 그

Fig. 4. 물구장숙의 깃과 소매자락의 습색목, 日本女性服飾史, p.53.

리고 직선의 의복선 색채의 조합과 대비가 표출하는 종합적인 미가 융합되어 우아하고 세련된 복식미를 연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 헤이안시대에 나타난 복식현상은 복식이 전대보다 거대화되고 장대화 된 점, 장식화 된 점, 착장 상 겹쳐 입게 된 점, 속옷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점, 색상이 다양화된 점, 그리고 강장속화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3.2. 복식현상의 요인

본장에서는 위와 같은 복식현상에 대하여 당시 헤이안시대 중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복식현상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하여 다원적인 면에서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3.2.1. 정치적 요인

우선, 정치적 면에서, 대외적으로는 헤이안시대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대륙에서는 송 왕조와 요가 건국되었고,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건국되는 등 동아시아는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당에 견당사와 유학승을 파견하여 당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당은 다라스 하반(河畔) 폐전과 안록산의 난, 그리고 군벌반란이 겹치게 되는 등 당의 쇠퇴와 항로의 위험성,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894년 견당사를 폐지하였고(相川佳子, 1984) 10세기 초에는 발해와의 교섭도 단절되었다. 한편, 당의 폐망과 함께 신라도 멸망하게 되고 이어 고려가 건국되었으나, 일본은 고려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천황의 외척인 후지와라씨가 대립 세력을 배제하고 섭정하면서, 중앙과 지방정치는 문란해지고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횡행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林屋辰三郎, 1988). 또한 율령정치가 동요하고 관리의 규율도 혼란하여 후지와라씨의 국정장악은 공사가 혼동되는 풍조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기에 귀족이나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장원이 형성되었고, 무사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다. 다이코(醍醐)천황재위(897-930) 때에는 지금까지의 율령대신 새로운 법률제도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927년에는 연희식(延喜式)이 완성되었고 일본의 지배기구인 지금까지의 율령체제에서 섭관체제로 바뀌는 등 율령제가 해이해 지게 되었다(河上繁樹, 1994).

즉 중국 및 주변국과의 교류단절, 율령제의 해이 등으로 국가적, 정치적 색채를 띤 각종 당의 의식제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당의 복식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복식의 규정에도 변화가 초래되기에 이르렀다. 즉 전기까지의 당풍모방단계의 복식이 점차 사라지고 일본풍의 복식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3.2.2. 경제적 요인

경제적으로는 헤이안시대에 들면서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수도의 천도 등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사정이 위축되어 가는 경향에 놓여있어 지배계층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에 처하게 되었다.

복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전기의 율령에 의한 복식규율이 중후기에 와서는 그 경계가 명확히 준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원래 예복은 나라시대에 당의 의식을 모방하여 지내던 즉위나 원일조하의식 때 착용하였던 당풍의 복식이었지만, 헤이안시대에 와서는 견당사가 폐지됨에 따라 외교 사절을 맞이하는 공식 행사 등도 없어지게 되면서 예복을 착용할 기회는 즉위식 때만 착용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예복의 착용은 줄어들어 쇠퇴하게 되었고, 예복을 대신하여 조복을 궁정행사에 착용하게 되었다(河上繁樹, 1994).

즉 전기에는 중요 행사에 예복을 착용하였으나, 중후기에는 예복의 구입에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조복을 예복화하여 조복과 예복을 겸하여 착용하는(杉本正年, 1984) 방법을 채택하면서 기존의 조복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예복으로서 위용을 갖춘 차림을 고안, 착용하였던 것이다. 남자의 경우 기존의 조복을 관활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예를 들어(Fig. 2)에서와 같이 소매의 길이와 폭을 길고 넓게 하였고 수구도 넓게 하였다. 즉, 중후기 조복의 수구 넓이는 전기의 것보다 2배에 달할 정도였으며(河上繁樹, 1994), 조복의 품과 길이 등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관활화 되었다. 여기에 조복의 복두와 복두 끈에 칠을 하고, 어깨와 허리를 강조하여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예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자의 경우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관활화 현상이 나타나, 하의인 군의 자락이 길게 되면서 겹쳐입기 방식이 유행되고, 이에 따라 허리에서 감아서 입던 군은 사라지게 되고 허리 뒤에만 있는 상으로 변화하였다(Fig. 5). 여기에 군 아래에만 착용하여 노출되지 않았던 고가 중후기에 와서는 고의 색을 붉은 색으로 바꾸고 길이를 길게 하여 바깥에 노출시키는 고로 변화하여 장대화현상과 함께, 속옷이 겉옷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Fig. 6).

3.2.3. 문화적 요인

문화면에서 보면, 일본의 문화는 정치적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는 당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비해, 중후기에는 당의 멸망과 더불어 일본의 미를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문화를 주도해가는 층은 지배계층의 귀족들이었고 이들에 의해 일본 문화도 크게 변화를 하게 되었다.

Fig. 5. 물구장속의 상, 源氏物語 六条院の生活, p.95.

Fig. 6. 물구장속의 고, 源氏物語 六条院の生活, p.97.

Fig. 7. 물구장숙의 문양과 소재, 源氏物語 六条院の生活, p. 97.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경제적인 사정이 위축되어 가는 경향에 놓여있었으나, 오히려 문화적인 면의 종교의식이나 사계절, 음양세시 등의 풍습은 궁정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행해지게 되었다(相川佳子, 1984). 궁정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들의 생활은 노동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흥취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행위가 그들 생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적인 의식이나 행사에서 사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였다(塚本瑞代, 1977). 그 중 연유(宴遊)행사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구가하는 행사로 이 행사를 통하여 지배계층은 그들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는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시가관현(詩歌管絃)모임이나 신불법요, 제례의식과 같은 행사는 지배계층의 사교의 장으로 발전함에 따라 여기에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경쟁 심리는 복식에 있어 성장(盛裝)의 발달을 촉진시켰을 것이며, 더구나 개인적인 취미는 복식의 문양이나 재질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배계층의 복식은 종전과는 다른 감각을 모색하게 됨에 따라 복식에 변화가 일어났고, 복식의 종류도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접염(摺染)이나 묘화(描畵), 지수, 금은박, 조개조각 등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넣은 문양이 발달하게 되었고(이자연, 1992/1999), 직물에 있어서도 나(羅)와 평견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으며 부드러운 직물과 풀을 먹인 뽕뻐한 천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더하기도 하였다(이자연, 1992/1999)(Fig. 7).

3.2.4. 사회 · 종교적 요인

사회, 종교 면에서 보면 당시 천황의 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국정을 장악하면서 중앙의 정치는 점차 문란해 졌다. 중앙정치의 동요는 지방정치를 어지럽게 하였으며 무질서한 사회문제와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지방에서의 무력항쟁도 빈번해 지게 되었다(박동석 외, 2000) 이러한 사회의 동요는 전환기 사회를 초래하는 움직임으로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과 불신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귀족과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후세계에 정토를 찾아 아미타여래에 의지하여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정토사상을 낳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불법의 쇠퇴와 함께 말세라는 말

법사상이 현실의 여러 가지 사회불안의 확대와 함께 증대되어 갔다(박동석 외, 2000). 특히 염불을 함으로서 극락왕생을 하고, 현세에 대한 절망과 부정의식을 바탕으로 내세의 구원을 바란다는 정토교는 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았고, 또한 엄격한 정신주의적인 밀교를 도입하여 현세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지기도(加持祈禱)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정토교와 밀교의 확대는 당시의 미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정토교의 영향으로는 각지에 아미타불(阿彌陀仏)을 본존으로 하는 평등원불황당(平等院鳳凰堂)과 정유리사본당(淨琉璃寺本堂) 같은 우아하고 화려한 아미타당을 건립하여 극락정토를 재현하려고 하였고, 지방에도 많은 아미타당이 건립되었다. 밀교에 관련하여서는 만다라(曼荼羅)와 가지기도를 위한 존상(尊像)과 같은 강렬한 정신력과 신비감이 표현되고 교리가 구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이 주로 만들어져 이를 신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배계층들은 종교의 영향으로 이전의 안정을 되찾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이를 토대로 문화적 능력을 최대한 성숙시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라 사료된다(安允淑, 1998). 그들은 국한된 세계 속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걸친 문화적인 축적과 세련을 바탕으로 섬세한 감각을 연마했고, 문화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숙시켜 나갔다. 즉, 대륙문화로부터 문화적 독립을 쟁취함과 더불어 질적으로 매우 고도하고 우아하며 정취적인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이른바 일본문화는 대륙문화의 도입에서 벗어나 일본적인 문화인 국풍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국풍화는 대륙으로 부터 수준 높은 문화를 흡수한 후, 여기에 일본인 특유의 감각과 자연관을 가미시켜 독특한 문화인 일본풍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세기부터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계급에서 지금까지의 당풍모방을 반성하는 기운이 생기면서 일본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일본풍의 형식이 모든 분야에서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풍화는 헤이안시대 당시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문화전반적인 면에 기저를 이루고 있으면서 다방면에서 그 영향이 발휘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문예 영역에서 가나의 발명으로 일문학의 융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귀족 생활의 복잡하고 다채로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짧은 형식의 와카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산문 형식의 물어(物語)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원씨물어》와 같은 작품이 집필되었던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침전조(寢殿造)라는 건축양식이 귀족 주택에서 유행하였다. 그림에 있어서는 대화회(大和繪)가 새로 생겨났으며, 회권물(繪卷物)은 대화회를 본위로 한 두루마리로, 동적으로 전개되는 정경을 연속적으로 그려 나가는 일종의 영화와 같은 효과를 노린 회화가 묘사되기 시작하였고 대표작으로는 《원씨물어회권》과 《조수회화(鳥獸戲畫)》 등이 있다.

이렇듯 국풍화의 현상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방면에 기저를 이루면서 복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주거형태가

침전조라는 건축양식이 선호되고 유행됨에 따라 의복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침전조는 침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 또는 한 쪽에 대옥(炊屋)을 만들어 대옥에서 다시 몇 개의 건물을 복도로 연결되도록 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침전과 대옥의 내부는 주실의 주위에 행랑방이 만들어져 있으며, 주실과 행랑방의 바닥은 연결되어 깔려있고 경계에는 기둥만 세워져 있으나 앉을 자리의 위치는 신분이나 위계에 따라 주실과 행랑방과는 구별이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있다(이자연, 1992/1999). 이러한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집과 집은 복도로 연결되게 건조되어 실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중후기의 복식이 인체보다 크고 길어 바닥에 닿아 끌리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의인 모가 허리 뒤에 늘어뜨려져 끌리는 형태로 변화된 것은 국풍화의 영향을 받은 일본 특유의 건축양식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2.5. 풍토 · 환경적 요인

풍토 · 환경적 요인에서 보면, 중후기복식의 겹쳐 입는 착장법은 당시 궁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생활하던 장소인 교토의 기후와도 매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토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여러 겹의 의복을 겹쳐 입게 되는 필연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와 같은 착장법이 도입되어 중후기의 복식이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 특유의 풍토 환경이나 계절의 변화와 기상조건, 풍부한 초목을 비롯한 자연의 감상은 복식의 색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헤이안시대의 겹치는 색과 같은 독특한 색채감각이 생기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6. 복식의 구성적 요인

복식이 가지는 내적요인으로서 구성복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복식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복의 형태와 착장법에 관하여 구성복식별로 보면 물구장속 중 맨 위에 착용하는 당의는 나라시대의 배자가 변화한 것으로, 헤이안시대에 당의상장속의 구성복식으로 된 것이다. 당의아래 착용하는 복식의 양이 많아지고 길어짐에 따라 맨 위에 입는 당의는 오히려 길이가 짧아지고, 화장의 길이도 짧게 하여 당의 아래에 착용한 복식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게 하였다.

상은 고대부터 여자들이 입어왔던 스커트형식의 하의로, 나라시대에는 스커트상의 습과 군을 착용하고 있다(이자연, 1999). 중후기에는 상이 형식화되어 물구장속의 구성복식으로 되면서 착장법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전기에는 상을 먼저 입고 상의인 당의를 착용하였으나, 당의를 입은 후에 상을 입는 방법으로 변화하였다(高田俊男, 1978). 이것은 평상시는 상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장식성이 요구될 경우에 간단하게 허리에 두르는 착장법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듯 상은 등 쪽의 허리부위에만 감아 길게 늘어뜨려 장식화된 형식으로 변화

하게 되었다. 상이 형식화되어 장식적인 용도로 변화됨에 따라 종전의 군 아래에 장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습과 군의 앞부분에 걸치도록 되어있는 폐슬도 자연히 퇴화되어 헤이안 중후기의 장속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규는 원래 안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이며, 맨 아래의 내의와 맨 위에 입는 당의 사이에 착용하는 복식이다. 물구장속이 예장으로 되면서 규는 내의 위에 15령 또는 20령까지 겹쳐 입게 되었으며, 맨 위에 입는 규를 특히 표착이라 하여 문양이 있고 광택이 나는 것을 착용하기도 한다. 표착아래의 규를 특히 습규라 하고, 색을 달리한 규를 여러 겹으로 겹쳐 착용하였다. 이러한 규의 착용법과 구성적인 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는 수령의 전개형에 직선재단의 단순한 구성으로 된 것으로, 이러한 단순한 구성의 옷을 착용하기 위하여는 당시 귀족들의 미의식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위하여 색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규의 구성적인 면의 단순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오히려 단순함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구가하였는데, 같은 형식의 의복에 색을 달리 착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색을 달리한 같은 형식의 의복을 여러 겹 겹쳐 입음으로서 구성적인 면의 단순함을 피하였고, 착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깃 부위와 소매부리, 자락 부위에는 안에 겹쳐 입은 의복이 외부에 표출이 되도록 착용함으로써 다양한 색을 연출하게 하여(伊原 昭, 1977) 오히려 새로운 복식미를 나타냄으로서 크고 풍성한 복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결 언

본 연구는 헤이안시대 지배계층 여자복식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하여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차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헤이안시대는 국제성이 희박하고 국가의식이 약하여 사적인 권력을 위한 음모가 많았던 시기인 반면, 궁중을 중심으로 한 귀족문화가 번영하여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발전시킨 시대였다.

나라시대부터 헤이안시대까지의 8-12세기 동안, 복식은 10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거대화, 장대화, 장식화, 겹쳐 입기, 속옷의 길옷화, 다양한 색상의 사용, 강장속으로 변화되는 복식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복식현상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는 당시 대내외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일본풍의 복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경제사정의 위축으로 조복을 예복화 함에 있어 관활화, 고의 장대화, 길옷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사정의 위축과는 달리 문화행사의 성행으로 복식의 문양이나 소재가 발달하여 장식화와 강장속으로의 변화,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사회 ·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지배계층은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종교적인 여유를 영위하게 되면서 일본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짐에 따라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 국풍화를 창조하였다. 국풍화현상은 건축양식에 변화를 가져다 주

면서 복식에도 영향을 끼쳐 거대화, 장대화 현상을 유발하였다.

풍토·환경적인 면에서는 기후풍토의 영향으로 겹쳐 입는 착장법과 독특한 색채감각이 연출될 수 있었으며, 복식의 내적 요인으로는 구성복식에 대한 단순한 형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식의 크기와 길이, 색, 문양, 소재 등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헤이안시대 지배계층의 복식에서 나타난 복식현상은 당시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의 다원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복식현상은 지배계층 자신들의 귀족적이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한 표현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배계층이라는 인간의 미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헤이안시대는 인간미의 극치를 복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동성, 박진우, 최영호. (2000).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 서울: 좋은날, pp. 52-55, p. 52, p. 55.
 이자연. (2008). 일본지배계층 복식의 변화와 양상. *한국의류산업학회*

지, 11(3), 85-94.
 이자연. (2009). 일본 나라시대 지배계층의 여자복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5), 701-708.
 이자연. (1999). 일본 고분시대의 하니와의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5), 19-32.
 최순우, 정양모, 안휘준, 김종태, 이성미, 허영환. (1993). *월드아트콜렉션*. 서울: 삼성출판사, p.146.
 相川佳子. (1984). *服裝史*. 東京: 相川書房, p. 130, p. 130, p. 131.
 安允淑. (1998). *源氏物語における外來文物の文藝的研究*. 岡山大學大學院.
 林屋辰三郎. (1988). *日本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p. 163.
 河上繁樹. (1994). *日本の美術*8. No.339, 東京: 至文堂, p. 21, p. 21, p. 21.
 高田倭男. (1977). 平安時代の服裝. *服裝文化*, 155, 36-49.
 高田倭男. (1978). 平安末・鎌倉時代の服裝. *服裝文化*, 158, 22-37.
 伊原 昭. (1977). 平安時代の服色美. *服裝文化*, 155, 20-29.
 関根真隆. (1974).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p. 17.
 杉本正年. (1984). 平安朝の服飾に及ぼした中國宋文化の影響. *日本服飾学会誌*, 3, p. 1-9.

(2009년 5월 8일 접수/ 2010년 1월 8일 1차 수정/2010년 1월 8일 게재확정)